

Bakelite, Epoxy 시장 적극공략

영업 및 기술담당 임원 신규영입 ...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침병”

Bakelite Korea가 기존의 팀별로 운영되던 영업조직을 통합 관리할 영업 및 기술담당 임원으로 이광원 상무 이사를 영입하면서 고부가가치제품 영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Bakelite Korea(대표 허방)는 그동안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영업기획팀, 기술팀 등 영업과 기술관련 부서를 팀별로 운영했으나 이광원 신임 상무이사를 영입하면서 영업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을 대폭 보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모회사인 Ruetgers AG의 3개 사업부문을 특성화하는 계획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대주주 변동에 따른 논란도 잠식시킬 수 있어 수요기업들에게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임 이광원 상무이사는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을 전공했고 인하대학교 대학원과 Akron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고분자 응용 등 기술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Epoxy의 세계적 회사인 Shell의 중앙연구소에서 전기전자, Coating 등 Epoxy 응용에 관한 연구과제를 3년간 수행했고 국내 에폭시 생산기업에서 재직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영업부문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akelite Korea 관계자는 “현재 독일 Bakelite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에폭시 사업의 활성화와 차별화된 제품의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임 이광원 상무이사의 영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에서 본격적인 에폭시 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의 Needs를 선도하는 Epoxy 전문 Maker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Bakelite 그룹은 페놀수지, 에폭시수지 및 컴파운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100년 역사의 열경화성 수지 생산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한 독일, 미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akelite AG는 RAG 그룹의 Ruetgers AG 부문의 4개 소그룹 중 한 곳으로 Bakelite Korea는 Bakelite AG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Ruetgers AG는 Bakelite AG, Isola AG, HT Troplast AG, Ruetgers Chemical 4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Ruetgers Chemical 부문을 제외한 Ruetgers AG의 3개 사업부문을 특성화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 매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akelite Korea 관계자는 “Bakelite Korea를 별도로 분리매각하는 것이 아닌 Bakelite AG 전체가 매각대상이기 때문에 공장 이전 및 생산의 변화는 없다”며 “Bakelite 매각은 단순히 지주회사 변경에 따라 소유주가 바뀌는 것일 뿐 에폭시 및 페놀수지의 생산 및 판매에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Bakelite AG 매각은 JP모건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4/16>